



영국·일본 북스타트 운동 전문가로부터 듣는 아동출판의 대안, “북스타트 운동으로 미래를 키워야”

지난 4월 1일 첫 걸음을 내디딘 한국 북스타트 운동이 출판문화계와 일반 독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북스타트한국위원회(대표 도정일·경희대 교수) 사무처가 개최한 북스타트국제심포지엄은 주제발표, 강연, 현장방문 등 한국의 북스타트 운동 실효성을 여러 갈래에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방한한 크리스 미드(영국 북트러스트 사무총장), 웬디 쿨링(영국 북스타트 자문위원 / 북스타트 프로그램 제안자), 시라이 테츠(일본 북스타트 지원센터 사무국장), 사토 이즈미(일본 북스타트 지원센터 이사)는 9월 22일~25일 한국의 출판환경을 둘러보고 국내 독서운동관계자들과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세계에서 5번째로 시작한 한국북스타트 운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지난 9월 24일 파주 북시티를 방문, 인포룸에서 가졌던 “북스타트와 출판계 - 영국·일본의 경험” 심포지엄을 지상 중계한다.

국제적인 출판도시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곳이 파주 북시티입니다. 둘러보신 소감은?

크리스 미드 세계적인 출판도시가 한국에 건설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출판과 연계한 모든 기관들이 한 곳에 집합된다니 상상하기조차 힘들군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지어진 멋진 건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웬디 쿨링 출판과 관계한 도시계획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웃음) 파주 북시티가 완성되는 날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놀라움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시라이 테츠 이렇게 큰 구상을 하고 현재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한국 출판계의 저력을 느꼈습니다. 파주 북시티를 둘러보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웃음)

북스타트 운동과 출판계가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들려주세요.

웬디 쿨링 영국의 한 아동출판사는 북스타트 운동본부에 출판기획을 물어올 정도입니다. 함께 논의해 만든 책도 여러 권인데, 이는 북스타트 운동의 긍정적인 면을 출판계가 이해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역시 좋은 가격으로 책을 후원하고 있는 출판사에게 금전이 아닌 정신적 후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라이 테츠 일본에서 북스타트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 일을 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의 가장 큰 과제는 유아기에 책을 전달하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10~20년 후의 좋은 독자를 키우는 일이 북스타트 운동의 목적입니다. 북스타트 운동과 출판계의 관계는 미래를 키우는 일에 있습니다.

책이 담긴 가방을 전달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영국과 일본의 북스타트 가방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웬디 쿨링 두 권의 유아도서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위한 책읽기 안내 책자, 유아용 첫 번째 도서목록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필기구와 아이들이 좋아할 풍선도 몇 개 담아 놓았습니다.(웃음) 영국에서는 18개월이 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방을 제공합니다. 그 가방의 내용물 역시 이전과 비슷한데,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크레파스입니다. 색감을 직접 느끼고 이해할 시기이기니까요.

시라이 테츠 일본 역시 영국과 내용물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18개월이 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방으로 바꾸어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가방에 담긴 일러스트도 섬나라 일본에 맞게 해달로 바꾸었지요. 한국에서는 일러스트로 개를 선택했는지요?

북스타트 운동 대상이 유아로 한정되어 아쉬움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과중한 입시부담으로 소위 '문제아' 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운동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크리스 미드 유아기에 책과 가깝게 지낸 아이는 '문제아' 가 될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한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책을 멀리 둔 아이보다 훨씬 유리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지요. 북스타트 운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는 유아기의 책읽기입니다. 아직 그 부분 계획은 없지만 좋은 의견임에는 공감합니다.

시라이 테츠 일본 북스타트 운동본부 역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계획은 없습니다. 유아기에 책과 함께하는 습관을 위해 시행할 프로그램이 아직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10분간 독서운동' 이란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고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아침 수업 전 10분간 선생님과 학생 모두 책을 읽습니다. 잡지와 만화는 제외되지요.

아동전문출판인으로서 북스타트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스타트운동이 아동출판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웬디 쿨링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후원은 해주시는 거죠?(웃음)

북스타트 운동본부가 추천하는 아동도서목록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부모들은 실제 북스타트 도서목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합니다. 후원 출판사들의 책을 통해서도 훌륭한 출판사 프로모션이 가능합니다. 책의 날개에는 3~4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그 부분 역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대하고 후원하는 출판사들이 단기간 내 홍보효과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을 보아왔는데, 북스타트 운동을 후원하는 출판사라면 욕심은 버려야겠지요.(웃음) 시라이 테츠 마스크를 통해 얻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국지, 지방지를 통해 북스타트 운동이 곧잘 소개되는데, 특히 지방지의 경우 관련기사와 함께 책소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들의 밝은 사진 자체가 책을 더 신뢰하게 하지요. 이러한 따뜻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출판사라는 이유만으로도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구요. 독서추천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것은 독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모든 엄마와 아기를 통해 몇 배의 시장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추천도서목록은 어떠한 책들입니까?

시라이 테츠 올해 저희는 20종의 아동도서 추천목록을 새로이 배포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책들이 대부분이고 신간의 경우는 2권만 포함시켰습니다. 30년 전 작품도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을 신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웬디 쿨링 영국 역시 목록에 고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다양한 캐릭터들이 고전에 담겨 있지요. 신간의 비율은 2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차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번 "북스타트와 출판계 - 영국·일본의 경험" 심포지엄에 참석한 세 사람은 심포지엄이 끝난 뒤에도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파주 북시티 인포룸에서 완성되어 가는 북시티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그들의 관심만큼, 한국 북스타트 운동에 많은 아동출판사의 관심이 더해 세계적인 모범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